

## 한국, 2021년 이후 3년 연속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



▲ 대형마트에 진열된 미국산 소고기. 사진=뉴스1

지난 2021년, 2022년에 이어 작년에도 한국이 전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농업부(USDA)와 미국 육류수출협회(USMEF)는 전날,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23만3천81톤(t)으로 중국 및 홍콩(20만1천500t), 일본(19만8천528t)을

앞서며 전세계에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한국의 작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2022년 28만4천521t보다는 18% 감소했다. 금액면에서도 작년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20억4천700만달러로, 중국 및 홍콩(19억300만달러), 일본(13억5천600만달러)을 앞섰다.

USMEF는 금액기준으로 작년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은 전년(26억6천400만달러)보다 23% 감소했으나, 3년 연속 20억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소고기와 소 부산물(허를 비롯해 간·콩팥·신장 등 식용으로 사용되는 소의 내장기관 등)까지 합친 경우 작년에 처음으로 전세계에서 수입량이 가장 많았다. 소고기와 소 부산물을 합칠 경우 작년 한국의 전체 미국산 소고기 관련 수입량은 24만8천562t으로 일본(24만3천19t), 중국 및 홍콩(22만8천697t)보다 많았다.

지난 2022년 미국산 소고기와 소 부산물 수입량의 경우 한국은 29만4천326t, 일본은 31만677t으로 일본이 더 많았다.

## 가계 빚 또 '역대 최대'로 증가



▲ 서울 한 은행의 대출창구. 사진=연합뉴스

한국 가계 빚이 계속 팽창하고 있다. 작년 4분기말 기준 가계 신용(빚)이 또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 20일 '프레이안'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2023년 4분기 가계신용(잠정)'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기존 역대 최대 기록이었던 전분기말(1878.3조 원) 대비 8조1000억 원 증가한 1886조4000억 원이었다.

가계신용은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22년 4분기(-3조6000억 원)와 작년 1분기(-14조4000억 원)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작년 2분기 8조2000억 원이 늘어 반등한 후 3분기에는 17조 원가량 증가했고, 4분기까지 증가세가 이어졌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돈(대출)에 미결제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합산한 가계의 총 부채다.

가계신용 급증의 주요 원인은 대출이었다. 작년 4분기말 가계대출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6조5000억 원 증가해 1768조3000억 원이 됐다. 역대 기록이었던 작년 3분기(1761조7000억 원)를 넘어선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로써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2분기(8조7000억 원)부터 3분기(14조4000억 원)를 거쳐 4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다만 작년 연간 가계대출 증가 폭(18조4000억 원)은 연간 감소세를 보인 2022년(-7조 원)을 제외하면 2003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작았다.

##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 '역대 최고'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시장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21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은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55만5천054건 중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1만1천812건으로 전체 거래 비중의 74.2%라고 밝혔다.

아파트 매매 거래비중은 지난 2020년 73.0%, 2021년 65.9%, 2022년 58.7% 등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상승세로 전환됐다.

전국에서도 아파트 매매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로 주택 매매 거래량 5천606건 중 아파트 매매 거래



▲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붙은 부동산 매물 광고. 사진=연합뉴스

량은 5천297건으로 아파트 비중이 94.5%를 기록했다. 이어 대구 89.4%, 광주 89.3%, 울산 89.0% 등이 아파트 거래 비중이 높았고 경기는 75.5%, 인천 67.5%의 거래 비중을 보였다.

반면 단독(단독주택·다가구주택)과 빌라(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비(非)아파트' 매매 거래량과 거래비중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지난해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매매 거래량은 5만7천649건으로 전체 거래의 10.4%,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빌라 매매 거래량은 8만5천593건으로 15.4% 비중을 기록했다.

비아파트 수요는 2022년 단독 15.8%, 빌라 25.5% 등 매매 거래비중이 41.3%까지 치솟았지만 1년 만에 비중이 크게 줄었다.

SC FOOT AND ANKLE CENTER

YouTube "건강한발TV"를 검색, 구독/좋아요/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세요!

### 강현국 김상엽 발&발목 전문센터

Southern California Foot and Ankle Center [scfootnankle.com](http://scfootnankle.com)

**당뇨 신발**  
보험 적용 & 문의 환영

**Medi-Cal**  
0세부터 20세까지

**- 전문 발&발목 질환 진료과목 -**

- 발 통증 (Plantar Fasciitis)
- 평발 (Flat Feet)
- 무지외반증 (Bunion)
- 작은발가락 기형 (Hammer toe)
- 당뇨병성 질환 (Diabetic Ulcer, Neuropathy)
- 내성 발톱질환 (Ingrown Toenail, Fungal Toenail)
- 신경종 (Neuroma)

- 발통풍 (Gout Attack)
- 발·발목 골절 (Foot and Ankle Fracture)
- 사마귀 (Plantar Warts)
- 무좀 (Athlete's Foot)
- 아킬레스 건염 (Achilles Tendonitis)
- 발 성형수술 (Foot Plastic Surgery)
- 소아 안짱다리 교정 (Intoe gait)

★ 레이저 고풍이 발톱 치료 Special ★

**강현국**  
Hyun Kang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Podiatric Medicine at Barry University  
Residency: Kendall Regional Medical Center, Trauma Surgery Center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김상엽**  
Sang Kim DPM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BS  
Medical Education: School of Arizona Podiatric Medicine at Midwestern University  
Residency: Bridgeport Hospital Yale New Haven Health  
Hospital Affiliation: La Palma Intercommunity Hospital, West Anaheim Medical Center

각종 보험 PPO, HMO, Medicare, 저렴한 Cash Plan

LA 월~금 9am-1pm/ 2pm-6pm 토 9am-2pm  
OC 월~금 9am-12pm/ 1pm-5pm 토 9am-2pm  
Torrance 월~금 9am-12pm/ 1pm-5pm

**LA Office**  
213) 352-1090  
520 S. Virgil Ave. #105  
Los Angeles CA 90020

**OC Office**  
714) 735-8588  
5451 La Palma Ave. #26  
La Palma, CA 90623

**Torrance**  
424) 305-4417  
3400 Lomita Blvd. #305  
Torrance, CA 90505

FAX 562)249-8443  
ID : scfoot  
scfootnankle@gmail.com